

# 풍요로운 바다로 돌아오는 청년들... 섬에 활력이 돈다

금당도, 평일도(금일읍), 생일도로 이어지는 군도(群島)는 완도의 동쪽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각 섬마다 10여 개 이상의 섬을 거느리고 있다. 사실 이 군도는 완도보다 장흥, 고흥과 더 가깝다. 공무원 등을 제외한 섬 주민은 완도군청에 드나들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완도와 배편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행정물품을 받으러 군청에 가려면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고흥 녹동항에 도착해 장흥~강진~해남을 거쳐 1박 일 필요했다.

금당도는 특히 더 그렇다. 눈 앞에 바로 장흥 노력도항, 고흥 녹동항이 보이기 때문이다. 원래 장흥군에 속해 있다가 1896년 완도군이 만들어지면서 소속을 옮겼고, 1914년 금당도는 그 아래 평일도, 생일도와 묶여 금일면이라는 행정 구역을 구성했다. 금당도의 '금'과 평일·생일도의 '일'을 합친 것이다. 그러다가 이들 섬의 인구가 폭증하면서 1980년 금일면이 읍으로 승격하고, 다시 1986년 금일읍 출장소가 설치됐던 금당도가 분리돼 지금의 금당면이 됐다. 따라서 금일읍은 행정구역일뿐 섬 명칭은 아니다. 금일읍 주민들은 한자로 자신들이 사는 섬을 '평일도'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금당도는 544세대 1077명이 거주하는 비교적 큰 섬이다. 3개의 유인도와 15개의 무인도를 거느리며 39.54km의 해안선을 가진 이 섬에서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고 있다. 완도의 섬들이 대개 그렇듯 인구가 10.29㎞로, 전체(14.25㎞)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배편으로 가학항에서 장흥 노력도항까지 25분, 울포항에서 고흥 녹동항까지 45분이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지난 9월 8일 오전 9시 10분 금당도 울포항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금당 8경을 적은 표지석이다. 8가지의 아름다운 경관인데, 특이한 점은 8경 중 '교암청풍(峯岩淸風)', '사봉세우(裳峰細雨)', '학령낙조(鶴嶺落照)' 등의 명칭을 가진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시산 8경과 마찬가지로 돛단배, 새벽 종소리, 목동의 피리소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다소 지극의 현실과는 동떨어지지만 과거에 있을 법한 '인공미'가 가미되면서 절경의 아름다움은 더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금당도는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하다. 병풍, 부채, 코끼리, 남근 바위 이외에 상어바위, 스님바위, 초가바위 등이 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 아래 평일도와 생일도도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뛰어나 신안 홍도나 여수 백도와 같은 유람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당도 울포항은 이날 전통운반차를 파는 이동점포가 열리면서 10여 명의 노인들이 몰려들어 떠돌아다녔다. 오토바이 뒷좌석을 개조해 짐칸을 만든 전통운반차의 가격은 330만원. 기존 가격에서 100만원을 깎았다는 점포주는 "노화도

**'블루오션' 다도해 <29>**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완도편 - 금당도·평일도**



위실 등이 설치돼 있었다. 소화도는 그 인근이 연산호군락지로, 해양생태계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당 출신 면사무소 기능직 박동윤(56)씨는 "해조류 덕분에 주민들 먹고 사는데, '별이'가 나아지니 씹음이 커졌다"며 "청정해역 곳곳에 자리한 무인도에 둘러싸여 있는 금당도의 아름다운 해변도로도 자랑거리"라고 자랑했다.

계약직인 딸(27)과 근무하고 있는 그는 1980년대 초반 부안에서 김 양식을 하기 위해 10여년간 고향을 떠났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돌아왔다. 시집 간 딸은 주말이면 시위가 직장을 다니는 광주에서 지낸다. 박씨는 "고향 덕에 3대가 먹고 살고 있다"며 "딸이 돈 벌겠다고 오겠다는데 말릴 수 없었다"고 겸연쩍어했다.

평일도로 출발한 것은 정오께. 금당도와는 신도와 충도를 가운데 두고 있는 평일도는 완도 동쪽 군도의 단연 제1섬이다. 한 때 1만2000명에 달하는 인구를 자랑했지만 지금은 2045세대 3980명에 불과하다. 전년 대비 1.6%가 증가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다시마로만 16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이곳은 11회째 금일다시마축제를 열고 있으며, 돌아오는 인구의 대부분은 이 다시마와 연관이 있다. 다시마를 먹이로 하는 전복 양식도 잘 돼 가구당 평균 1억원 이상인 주민 소득은 계속 상승중이다. 면적은 완도군의 7.1%에 해당하는 28.1㎞, 해안선은 107.43km에 이른다.

관광자원으로는 폭 200m 길이 3km를 자랑하는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 수령 200년 이상 1000여 그루가 자생하는 월송해송림, 동백리 용굴, 3개의 산이 하나로 보이는 투명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일명사십리해수욕장은 최근까지만 해도 해당화해변으로 불렸다. 전 전남지사가 명사십리라는 명칭이 중복된다며 이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가 현 지사가 취임한 후 다시 제 이름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표지판은 두 가지 명칭이 다 쓰이고 있었다.

영화나 광고촬영지로 자주 이용되는 금일명사십리는 아직 신지명사십리 등에 비해 찾은 이가 적어 가는 모래와 맑은 해변이 잘 보존돼 있어 탄성이 나올 정도였다. 거북섬, 이승만섬 등을 비롯해 병풍도, 부도, 섬도, 다랑도, 우도, 소량도, 대사도, 소사도 등 유인도 10개와 무인도 33개 등 43개의 섬이 감싸고 있는 풍광 또한 뛰어나다.

갯벌이 좋고 바다가 건강해 육질이 좋은 금일산 어류는 주로 호텔이나 백화점으로 팔려간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다만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육지양식장으로 인해 해변의 경관이 훼손 또는 파괴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해조류 양식으로 소득증대... 고향 떠난 자녀 'U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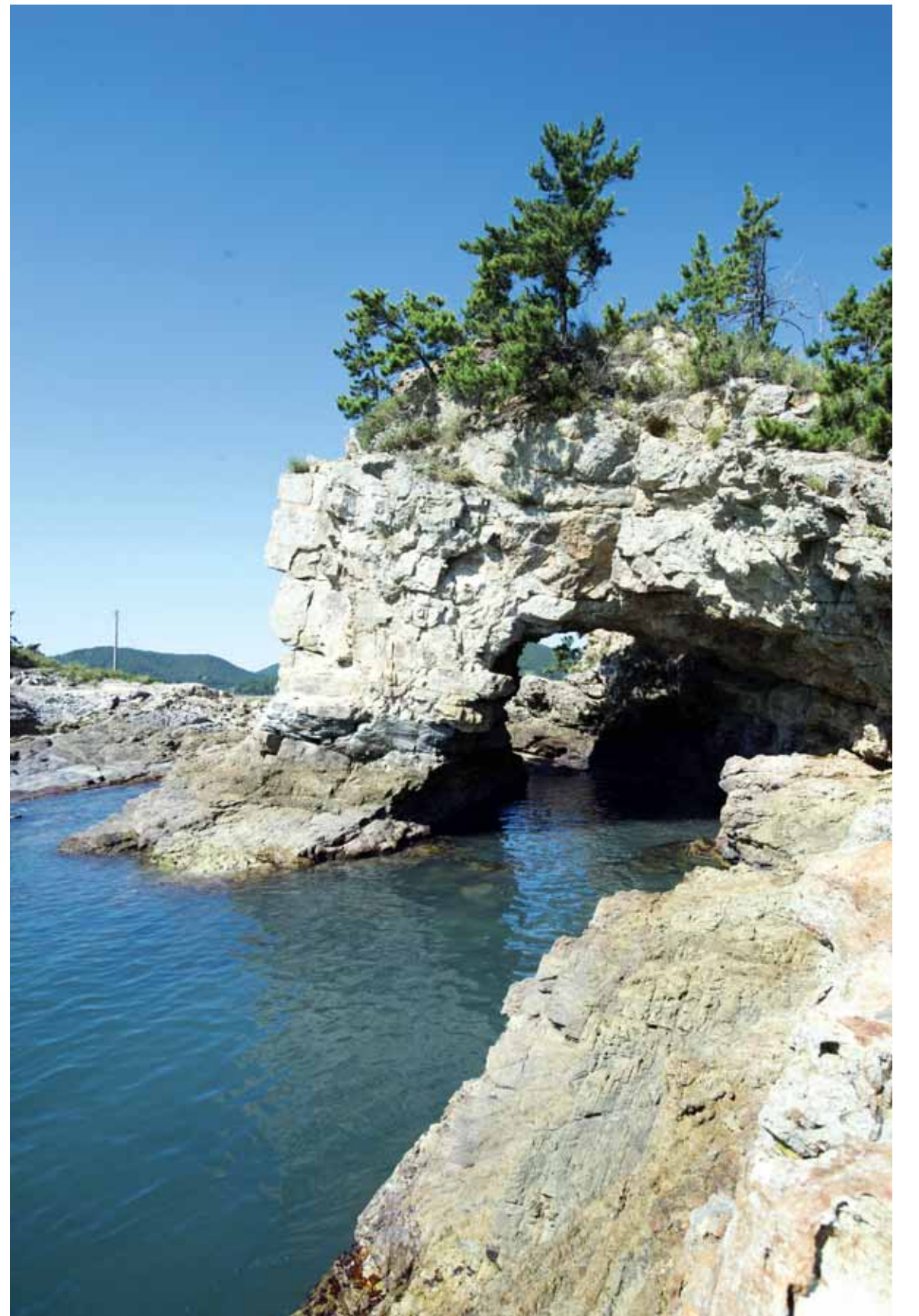
### 평일·생일도 해변 경관 뛰어나 유람선 필요성 대두

에 갔는데, 거기서도 많이 팔았다"며 설득했으니 노인들은 무덤덤했다.

우체국에서는 가득 쌓인 택배를 처리하느라 직원들이 분주하다. 외지로 보내는 택배의 대부분은 문어와 장어로, 모두 울포항과 비견도 사이에서 많이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당도 역시 전복과 해조류로 대표되는 완도의 섬으로, 해조류 양식을 통해 '잘 사는 섬'으로 거듭났다. 1990년대까지 어류 양식이 주를 이뤘는데, 수익률이 낮아 주민들은 가난했고 결국 타지로 떠나는 주민들도 많았다.

12년 전 직원으로 근무한 뒤 면사무소의 '우두머리'가 돼 금당도에 온 김병철(57) 면장은 "룻, 다시마, 청각 등 해조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종목이 바뀌고 주민 소득도 최대 1억원까지 달하고 있다"며 "도시에서 변변한 직장이 없는 자녀들을 유턴시킨 주민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당도 주변 섬들도 인기다. 금당도에서 유일하게 약 50m 길이의 모래해변을 가진 운금포해수욕장에서 멀리 보이는 질마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사들여 회사 휴양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물이 있어 한 때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타깃'이 됐던 이 섬에는 몽골텐트, 사



평일도(금일읍)의 명물인 동백리 용굴. 인근에 들어선 육상양식장으로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 섬 사람들 '평일 박사' 금일읍사무소 전준성씨

### "단체장 치적용 아닌 미래 위한 개발 돼야"



나이에 비해 지극한 풍채의 전준성(43)씨는 평일도 내를 지나는 차량들이 외지차인지, 운전자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행선지가 어디 있는지를 신기하게도 모두 알아맞췄다.

그는 "평일도 안에 굴러다니는 차가 1700대인데, 이 가운데 교사나 농협 직원 등이 소유한 500대는 타 지역에 등록해둔 차량"이라며 "그 외는 모두 외지 차량이다"고 말했다.

평일도 내 차량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역사와 문화, 자원을 설명하는 전씨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전씨는 "평일도에서 태어나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는 최근 섬에 불어닥친 '개발 바람'과 관련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의무"라며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현재의 불편을 덜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개발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당도 울포항 앞에서 있는 금당 8경 표지석. 다도해의 섬 가운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라면 대개 '8경'을 가지고 있다.



금당도의 골목길. 여느 농촌마을 길과 비슷하다. 짐칸을 설치한 오토바이를 탄 노인들이 유독 많이 보였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KIRA 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